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김경민* · 송지은** · 조은영***

초 록

본 연구는 Pluess와 동료들(2018)이 개발한 민감성 척도(Highly Sensitive Child Scale; HSC)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736 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luess와 동료들(2018)이 개발한 민감성 질문지(Highly Sensitive Child Scale; HSC)의 초기 37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1999)가 개발한 BFI(Big Five Inventory)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간편형 한국어 BFI(김복환, 하문선, 2011)를 사용하였고,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The BIS/BAS scale)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행동억제체계(BIS) 척도(김교현, 김원식, 2001)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민감성 척도는 심미성 지각, 자각 불편감,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감성 척도의 모형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민감성과 성격 5요인(Big Five Inventory; BFI),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민감성은 두 가지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내적 일치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평가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환경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민감성, 척도 타당화, 한국 청소년

*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교신저자, naivety1@korea.ac.kr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접한다. 인간은 모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환경을 받아들여 처리하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동일한 외부 환경에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초기 민감성 연구에서는 까다롭고 민감한 것을 취약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여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부정적 환경에 처하면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다고 보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Monroe & Simons, 1991).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기질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보고자 하였고, 민감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감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차별적 민감성(differential susceptibility)은 발달 심리학에 근원을 둔 것으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민감성이 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살아남은 특성이라는 진화론적 관점도 지지한다(Belsky, Hsieh & Crnic, 1998).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민감성(biological sensitivity to context)은 환경 자극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에 중점을 둔 이론으로,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은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지원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Boyce & Ellis, 2005). 감각처리 민감성(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에서는 민감성을 개인의 기질적 경향성 또는 성격 특질로 보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처리과정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김수진, 주유미, 2013). 그리고 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 반응성이 높고 작은 환경적 변화도 잘 알아차리며 과잉자극에 잘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Aron, Aron & Jagiellowicz, 2012). 이상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환경 민감성 이론(Pluess, 2015)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환경 민감성(environmental sensitivity)은 외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민감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으로, 여기서 환경은 통제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혹은 내적이거나 외적인 자극을 포함하며, 사회적 환경, 외부 자극 관련 환경, 내적 사건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민감성에

근거를 두고 민감성을 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민감성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역기능적인 환경(예: 학대, 스트레스적 인생사건, 빈곤 등)뿐만 아니라 긍정적 환경에 대한 반응 정도도 민감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Pluess et al., 2018). 즉, 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의 감각 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보를 철저히 지각하고 처리하는 것이지(Belsky & Pluess, 2009) 취약한 기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마다 환경에 대한 민감성에 차이가 있으며, 오직 소수만이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가진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적자생존에 의해 살아남은 특성인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견해도 있다(Greven et al., 2019).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양육환경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이 취약요인이 되지만,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을 수용해주는 환경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이 공감 능력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유림, 김윤수, 2018). 이상의 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개인마다 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매우 다르며 일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자극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감성에 대한 연구도 부정적·긍정적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민감성에 대한 연구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Aron과 Aron(1997)은 본인 스스로를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성인 3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60문항의 민감성 질문지를 만든 뒤, 604명의 대학생과 30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질문지 연구를 수행하여 37문항의 성인용 민감성 척도(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HSP)를 개발하였다. HSP는 감각 처리에서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감각 자극을 더 잘 인식하고, 자극에 대해 행동을 억제하며, 신중하게 환경 자극을 인지 처리하고, 큰 정서적·생리적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 Aron과 Aron(1997)은 민감성을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보았지만, 이후 학자들은 민감성이 미적 민감성(aesthetic sensitivity, AES), 낮은 감각 역치(low sensory threshold, LST), 자극 수월성(ease of excitation, EOE), 세 가지 하위요인을 가진다고 하였다(Smolewska, McCabe & Woody,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적

민감성은 미술이나 음악에 크게 감동하는 것과 같이 미적인 것에 대한 알아차림, 낮은 감각 역치는 외부 자극에 대한 불쾌해 하는 것, 자극 수월성은 외부 및 내부 자극에 쉽게 압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luess와 동료들(2018)은 HSP 척도를 아동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HSC(Highly Sensitive Child scale)를 개발하였다. HSC는 성인 HSP 척도와 마찬가지로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극 수월성 5문항, 미적 민감성 4문항, 낮은 감각 역치 3문항,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민감성은 행동 억제 및 행동 활성화 체계, 의도적 통제, 부정적 정서성, 긍정적 정서성과 같은 성격과 관련이 있었으며, 민감성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개발된 HSP와 HSC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나라에서의 민감성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 구성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초기 37문항을 기반으로 한국판 민감성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감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HSP를 번역 및 타당화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향후 긍정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시기에 자신의 민감성 특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청소년 발달 과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감성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들의 자기이해 및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행동억제체계와 성격 5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감성의 하위요인들은 정서성 관련 요인들과 각각 다른 방향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ss, Timmel, Baxley & Killingsworth, 2005). 구체적으로 자극 수월성과 낮은 감각 역치는 부정적 정서성, 불안 및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적 민감성은 긍정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luess et al., 2018). Aron과 Aron(1997)은 민감성은 행동억제체계의 반응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행동억제체계란 정서 관련 행동을 조절하는 뇌 체계중 하나이며, 기질의 신경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Gray, 1991), 환경적 민감성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행동억제체계는 위

협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민감성 척도 개발 연구에서도 민감성의 하위요인들은 행동억제체계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olewska et al., 2006). 또한 Aron과 Aron(1997)은 민감성은 성격 5요인 중 내향성 및 신경증과는 구분되는 성격 특질이라고 주장하였다. 민감성이 성격 특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구성개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격 5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민감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은 각각 다른 패턴으로 성격 5요인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molewska et al., 2006). 이를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감성 역시 행동억제체계 및 성격 5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감성과 성격 5요인 및 행동억제체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본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인 민감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뒤 타당화하고 신뢰도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민감성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민감성 수준을 고려한 개입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소재한 7개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은 표본 1과 표본 2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표본 1을 활용하여 민감성 척도의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1에는 310명이 포함되었고, 이 중 남학생이 135명(44.3%), 여학생

이 170명(55.7%)이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174명(56.1%), 고등학생이 136명(43.9%)이었다. 다음으로 표본 2를 활용하여 민감성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재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2에는 300명이 포함되었고, 이 중 남학생이 152명(50.8%), 여학생이 147명(49.2%)이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177명(59%), 고등학생이 123명(41%)이었다.

2. 측정도구

1) 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Pluess와 동료들(2018)이 개발한 민감성 질문지(Highly Sensitive Child Scale; HSC)의 초기문항 37개를 연구교수 1인과 박사과정 연구원 5인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내용은 박사 과정에 있는 이중 언어 가능자가 검토하여 의미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이 척도는 미적 민감성(aesthetic sensitivity), 낮은 자극 역치(low sensory threshold), 자극 수월성(ease of excitation)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적 민감성(aesthetic sensitivity)은 예술 작품에 깊이 감동하는 것과 같이 심미적 요소를 인식하는 정도이다. 낮은 자극 역치(low sensory threshold)는 밝은 빛이나 큰 소음같이 외부의 불쾌한 감각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자극 수월성(ease of excitation)은 배고픔이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외부 및 내부 요구에 쉽게 압도되는 정도이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과 관련된 민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Pluess와 동료들(2018)의 연구에서 대상의 평균연령은 12.06세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행동 활성화 및 억제체계, 기질 및 성격 특성, 그리고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 관련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Pluess와 동료들(2018)이 보고한 민감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미적 민감성 .73(4문항), 낮은 자극 역치 .66(3문항), 자극 수월성 .71(5문항), 전체 .79(12문항)로 나타났다.

2) 성격 5요인 척도

본 연구에서는 5요인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1999)가 개발한 BFI(Big Five Inventory)를 김지현과 김복환, 하문선(201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간편형 한국어 BF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신경증(3문항), 외향성(3문항), 개방성(3문항), 성실성(3문항), 친화성(3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증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있고,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으며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이며,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고, 친화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문항의 내용의 성격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지현과 동료들(2011)은 본 척도의 간편형 한국판 타당화 연구를 통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NEO-FFI, 삶의 만족도, 우울, 진로결정수준, 학업성적과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김지현과 동료들의 연구(2011)에서 문항에 대한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67에서 .8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4에서 .87로 나타났다.

3) 행동억제체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The BIS/BAS scale)를 김교현과 김원식(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 중 행동억제체계(BI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벌이나 위협 단서에 반응해서 불안을 경험하고, 다른 위협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피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멈추도록 하는 동기체계의 민감성 수준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 단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교현과 김원식(2001)은

본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를 통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분노, 우울, 고독감, 신체병리 증상, 자기효능감, 생활 만족도, 성격특성, 정서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김교헌과 김원식의 연구(2001)에서 문항에 대한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78,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8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서울·경기에 소재한 7개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설문 실시 전에 교사에게 연구목적 및 취지, 설문지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의 개인정보 활용 및 비밀보장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어 교사가 해당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설문은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직접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 학생과 협조 교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1/3 이상을 응답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1의 경우, 총 37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가운데 36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310부(85.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2의 경우, 총 37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가운데 37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300부(80.6%)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자료는 IBM SPSS 25.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1($n=310$)을 사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하위영역별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표본 2($n=300$)를 사용하여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III. 연구결과

1.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타당도

1)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구성 타당도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KMO값이 .74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chi^2_{666}=2647.24$, $p<.001$),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주축 요인분석과 직접 오블리민 방식의 사각회전을 이용하였다. 먼저, 스크리 도표, 누적분산비율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은 3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뒤 요인의 개수를 3으로 고정한 뒤 요인 구조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추출을 위한 기준은 특정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이고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Floyd & Widaman, 1995). 또한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여 문항 제거시 해당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문항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항 내용상 해당 요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시켰으며,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이더라도 개념적으로 해당 요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12문항을 선정하였다. 총 12문항 역시 KMO값이 .74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도 유의한 수준($\chi^2_{66}=819.36$, $p<.001$)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이들 세 개의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4.61%로 나타났다. 사각회전(직접 오블리민) 후 산출된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 부하량(패턴행렬)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명칭은 민감성의 예비구인과 해당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문항의 저변에 잠재된 공통 요인의 개념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세 가지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 최종문항의 요인부하량(패턴행렬) 및 설명분산

(N=310)

번호	문항내용	요인			공통성
		1	2	3	
요인 1. 심미성 지각					
4	나는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좋다.	.73	-.01	-.06	.51
24	나는 좋은 냄새를 맡는 것이 정말 좋다.	.66	.05	-.04	.42
12	나는 좋은 맛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다.	.65	.04	.07	.47
10	어떤 음악은 나를 정말 기분 좋게 만든다.	.56	-.05	.07	.35
요인 2. 자극 불편감					
31	나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01	.80	-.01	.63
15	큰 소리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05	.78	.10	.61
16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하면 짜증이 난다.	.10	.50	.01	.26
6	나는 밝은 불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11	.38	-.06	.17
요인 3. 정서적 공감					
34	나는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6	.03	.60	.32
23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나도 같이 화가 난다.	.06	-.04	.60	.39
11	누군가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진다.	.26	-.10	.54	.48
14	어떤 음악은 나를 슬프게 만든다.	.21	.05	.38	.25
고유치		3.02	2.15	1.39	
설명변량(%)		25.17	17.90	11.54	
누적변량(%)		25.17	43.07	54.61	

표 2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성분 상관행렬

(N=310)

요인	1	2	3
1		-.02	.29
2			-.02

첫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아름다움을 쉽게 알아차리고 즐기는 것과 관련되므로 ‘심미성 지각’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도 4문항으로, 강한 외부자극에 대해 불편함 또는 불편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므로 ‘자극 불편감’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 역시 4문항으로, 다른 사람이나 외부 자극의 감정에 쉽게 동요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역치가 낮은 것과 관련되므로 ‘정서적 공감’으로 명명하였다. 민감성의 하위요인 및 전체 점수는 해당 문항들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각각의 요인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특성이 많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구조를 알아보고 더불어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추정을 위해서는 최대우도법(ML)이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한 표본(표본 1)과 중복되지 않는 표본(표본 2)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 모형의 적합도

모델	표본	df	χ^2	IFI	CFI	RMSEA
3요인 12문항	표본 2 (N=300)	51	100.67	.927	.924	.057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3요인 12문항 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이 자료와 부합되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 중 IFI 및 CFI

값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RMSEA 값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IFI와 CFI 값은 0과 1사이이며 .9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을 평가할 때에는 대략적인 기준으로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5 ~.08 사이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08~1.00이면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Browne & Cudek, 1993).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IFI는 .927, CFI는 .924, RMSEA는 .057로 나타나 좋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표 3 참조). 또한 표본 2를 대상으로 교차타당도를 검증해본 결과 역시 적합도 지수가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한 3요인 12문항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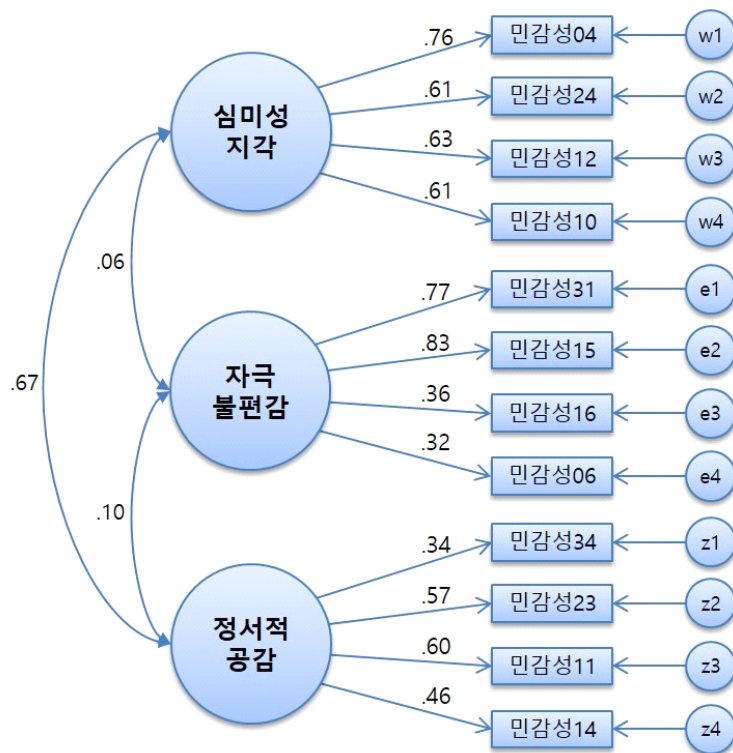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구조모형

2)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행동억제체계와 성격 5요인(BFI)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민감성의 세 하위요인 모두 행동억제체계와 정적 상관(심미성 지각 $r=.22$, $p<.001$; 자극 불편감 $r=.27$, $p<.001$; 정서적 공감 $r=.32$, $p<.001$)이 나타났다. 그리고 민감성은 성격 5요인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미성 지각은 개방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r=.32$, $p<.001$), 자극 불편감은 신경증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24$, $p<.001$), 정서적 공감은 친화성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6$, $p<.001$). 이를 통해 한국판 민감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4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와 행동억제체계, 성격 5요인과의 관련성

($N=310$)

	심미성 지각	자극 불편감	정서적 공감
행동억제체계	.22***	.27***	.32***
성격 5요인			
신경증	.03	.24***	.16**
외향성	.18**	-.18**	.21***
개방성	.32***	-.04	.11
성실성	.17**	-.10	.15**
친화성	.23***	-.14*	.26***

* $p<.05$, ** $p<.01$, *** $p<.001$.

2.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신뢰도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최종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판 청

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6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문항이 소수임을 고려할 때 본 척도의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의 신뢰도

(N=310)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 α
심미성 지각	4	.75
자극 불편감	4	.70
정서적 공감	4	.66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Pluess와 동료들(2018)이 개발한 민감성 척도를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한국 청소년의 민감성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민감성은 심미성 지각, 자극 불편감, 정서적 공감의 3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표본 1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요인 12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고, 표본 2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한국판 민감성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역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 지각에는 ‘나는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좋다’와 같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자극 불편감에는 ‘큰 소리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처럼 외부에서 오는 강한 자극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정서적 공감에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잘 공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표문항으로는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나도 같이 화가 난다’가 있었다. 즉, 인간의 성격 특질로서의 민감성은 단일 요인이 아닌, 어느 정도 구분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민감성 척도 개발 연구들에서 민감성이 구분되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Aron & Aron, 1997;

Evans & Rothbart, 2008; Pluess et al., 2018).

둘째, 민감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행동억제체계와 성격 5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민감성의 모든 하위요인은 행동억제체계 및 성격 5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감성은 높은 수준의 행동억제체계의 기능을 반영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Pluess et al., 2018). 일부 연구에서는 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자극 수월성 요인과 행동억제체계와의 관련성이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Smolewska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 요인이 행동억제체계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자극에 공감하거나 동의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중 외향성과 친화성은 심미성 지각 및 정서적 공감과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자극 불편감과는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증은 자극 불편감 및 정서적 공감과는 관련이 있지만, 심미성 지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감성은 신경증, 두려움, 내향성 등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기존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Aron & Aron, 1997). 민감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자극에 대해 신중하게 반응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신경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긴장감 수준이 높은 걱정이 많은 것뿐만 관련이 있는 반면(Friedman & Schustack, 2016), 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 주변 환경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심미적인 경험에도 쉽게 각성되는 등 다양한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민감성을 다른 성격유형과는 구분되는 하나의 성격 특질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민감성 척도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하위요인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서양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민감성 척도는 미적 민감성, 낮은 자극 역치, 자극 수월성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감성은 심미성 지각, 자극 불편감,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미적 민감성과 심미성 지각, 그리고 낮은 자극 역치와 자극 불편감은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극 수월성과 정서적 공감은 요인명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한꺼번에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짜증이 난다거나, 삶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싫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관찰하고 있을 때 역량이 저하되는 것 등을 자극 수월성이라는 민감성의 한 유형으로 보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외부 자극에 의해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리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 민감성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에는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 중점을 두는 것과 함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조화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2013). 이러한 가치관이 반영되어 한 개인의 성격 특성인 민감성에서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감성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 척도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뒤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항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감성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을 자기보고식 질문 방식으로 한 번만 측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혹은 교사 보고식이나 관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민감성을 측정한다면 한국 청소년의 민감성 수준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표집수를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와 적합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외 민감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민감성과 행동억제체계 및 성격 5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민감성이 개인 특성으로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교헌,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수진, 주유미 (2013). 기질 (Temperament) 요인을 반영하는 성인 감각처리 척도 타당화 연구. **대한인지재활학회지**, 2(2), 45-62.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 (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박영신, 김의철 (2013). **한국인의 성취의식: 토착심리 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신유림, 김윤수 (2018).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241-255. doi:10.14698/jkcce.2018.14.06.241
- Aron, E. N., & Aron, A. (1997).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introversion and emoti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45-368. doi:10.1037/0022-3514.73.2.345
- Aron, E. N., Aron, A., & Jagiellowicz, J. (2012).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 review in the light of the evolution of biological respons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 262-282. doi:10.1177/1088868311434213
- Belsky, J. A. Y., Hsieh, K. H., & Crnic, K. (1998). Mothering, fathering, and infant negativity as antecedents of boys' externalizing problems and inhibition at age 3 year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exper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2), 301-319. doi:10.1017/s095457949800162x
- Belsky, J., & Pluess, M. (2009). Beyond diathesis stres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35(6), 885-908. doi:10.1037/a0017376
- Boyce, W. T., & Ellis, B. J. (2005). Biological sensitivity to context: I. An evolutionary-developmental theory of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stress

- reactiv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2), 271-301. doi:10.1017/s095457940505014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319-333. doi:10.1037/0022-3514.67.2.319
- Evans, D. E., & Rothbart, M. K. (2008). Temperamental sensitivity: Two constructs or on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1), 108-118. doi:10.1016/j.paid.2007.07.016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doi:10.1037/1040-3590.7.3.286
- Friedman, H. S., & Schustack, M. W. (2016). *Perspectives on personality: Classic theories and modern research*. Pearson.
- Gray, J. A. (1991). The neuropsychology of temperament. In J. Strelau, & A. Angleitner (Eds.), *Explorations in temperament* (pp. 105-128). Springer, Boston, MA. doi:10.1007/978-1-4899-0643-4_8
- Greven, C. U., Lionetti, F., Booth, C., Aron, E., Fox, E., Schendan, H. E., Pluess, M., ... & Homberg, J. (2019).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sensitivity: A critical review and development of research agenda.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98, 287-305. doi:10.1016/j.neubiorev.2019.01.009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NY : Guilford.

- Liss, M., Timmel, L., Baxley, K., & Killingsworth, P. (2005).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parental bonding,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8), 1429-1439. doi:10.1016/j.paid.2005.05.007
- Monroe, S. M., & Simons, A. D. (1991). Diathesis-stress theories in the context of life stress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depressive disorders. *Psychological Bulletin*, 110(3), 406-425. doi:0.1037/0033-2909.110.3.406
- Pluess, M. (2015). Individual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sensitivity.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9(3), 138-143. doi:10.1111/cdep.12120
- Pluess, M., Assary, E., Lionetti, F., Lester, K. J., Krapohl, E., Aron, E. N., & Aron, A. (2018). Environmental sensitivity in children: Development of the Highly Sensitive Child Scale and identification of sensitivity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51-70. doi:10.1037/dev0000406
- Smolewska, K. A., McCabe, S. B., & Woody, E. Z. (2006).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The components of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nd their relation to the BIS/BAS and "Big F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269-1279. doi:10.1016/j.paid.2005.09.022

ABSTRACT

The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Kim, Kyungmin* · Song, Jieun** · Jo,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736 adolesc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final set of 12 Likert-style items were selected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Sensitivity Questionnaire(K-SQ). The K-SQ is consisted of 3 subscales including aesthetic perception, stimuli discomfort and emotional sympathy. The construct validity was demonstrat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e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Also, the scores of the K-SQ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scores in behavioral inhibition system(BIS) and Big-Five personality, which suggested an evidence of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K-SQ. Second, acceptable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SQ were demonstrated using reliability statistics. These psychometric findings indicated that the Korean version of Sensitivity Questionnaire is valid and reliable for Korean adolescents.

Key Words: sensitivity, validation, Korean adolescents

투고일: 2019. 12. 5, 심사일: 2020. 1. 31, 심사완료일: 2020. 2. 13

* Center for human ecology research,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부록>

표 6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 전체 문항에 대한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310)

문항내용	요인			공통성
	1	2	3	
12. 나는 좋은 맛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다 (I love nice tastes)	.75	.07	-.05	.56
04. 나는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좋다 (I love nice sounds)	.70	-.00	.01	.49
24. 나는 좋은 냄새를 맡는 것이 정말 좋다 (I love nice smells)	.68	.07	-.02	.47
10. 어떤 음악은 나를 정말 기분 좋게 만든다 (Some music can make me really happy)	.62	-.09	-.01	.39
19. 누군가가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진다 (When someone is sad, that makes me feel sad too)	.50	-.03	.39	.46
11. 누군가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진다 (When someone is happy, that makes me feel happy too)	.48	-.15	.36	.42
30. 누군가가 불편해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안다 (When someone feels uncomfortable, I know what to do to change that)	.39	-.20	.35	.33
14 어떤 음악은 나를 슬프게 만든다 (Some music can make me sad)	.39	.14	.22	.26
08. 나는 좋은 그림을 보는 것이 정말 좋다 (I love nice paintings)	.37	.12	.00	.16
02. 나는 불쾌한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unpleasant smells)	.35	.06	-.16	.13
35. 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I try not to make mistakes)	.31	.05	.24	.19
25.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I try not to forget things)	.27	.10	.22	.15
21. 나는 이상한 느낌(예: 까칠함, 간지러움 등)이 드는 옷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clothes that feel funny)	.26	.25	-.01	.14

문항내용	요인			공통성
	1	2	3	
16.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하면 짜증이 난다 (I am annoyed when people try to get me to do too many things at once)	.02	.71	-.10	.50
31. 나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loud noises)	-.06	.66	-.02	.43
15. 큰 소리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Loud noises make me feel uncomfortable)	.03	.56	.06	.33
06. 나는 밝은 불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bright lights)	-.22	.54	-.02	.33
33.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을 때, 나는 방안에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 (When there is a lot going on around me, I prefer to be alone in a room)	.10	.53	.01	.30
37.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해져서 평소보다 실력 발휘를 더 못하게 된다 (When someone observes me, I get nervous. This makes me perform worse than normal)	.02	.52	.08	.29
22. 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불안하다 (I get nervous when I have to do a lot in little time)	.22	.47	-.02	.28
20. 나는 배가 고프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 (When I am hungry, I cannot think properly)	.18	.46	.09	.28
29.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들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I try to avoid situations that I don't like)	.19	.43	-.12	.23
32. 나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it when things change in my life)	-.03	.43	-.00	.18
07. 나는 배가 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When I am hungry, I get in a bad mood)	.24	.40	.07	.24
26. 부모님은 나를 예민하다고 생각하신다 (My parents think I am sensitive)	-.09	.33	.29	.21
01.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 (I find it unpleasant to have a lot going on at once)	-.10	.32	-.18	.13
03. 선생님은 내가 수줍음이 많다고 생각하신다 (My teacher thinks I am shy)	-.23	.24	.12	.12

문항내용	요인			공통성
	1	2	3	
34. 나는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 t like watching movies that have a lot of violence in them)	-.02	.04	.64	.41
36. 나는 매우 꼼꼼하다 (I am very precise)	-.03	-.17	.58	.34
27. 나는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 t like watching TV programs that have a lot of violence in them)	-.14	-.13	.54	.29
23.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나도 같이 화가 난다 (When someone is angry, that makes me feel angry too)	.30	-.06	.44	.32
18. 나는 주변에 작은 변화가 있을 때 알아차린다 (I notice it when small things have changed in my environment)	.16	-.02	.44	.24
05. 나는 쉽게 깜짝 놀란다 (I startle easily)	.06	.07	.42	.20
13. 나는 주변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 t like it when it is a mess around me)	.01	.01	.40	.16
17. 나는 쉽게 통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I tend to feel pain easily)	-.23	.28	.40	.28
09. 나는 탄산음료를 마실 때 불편한 느낌이 든다 (Drinking coke, makes me feel uncomfortable)	-.22	.16	.38	.20
28.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오랫동안 깊게 생각한다 (I always think long and deep about everything)	.12	.06	.33	.14
고유치	4.91	3.43	2.25	
설명변량(%)	13.26	9.26	6.07	
누적변량(%)	13.26	22.52	28.59	